

父傳女傳... “골프는 내 운명”



LPGA 우승 이미림

“아빠, 나 우승했어”, “고생했다 잘했다고 감사다”
 ‘광주의 딸’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이 LPGA 투어 감각의 첫 우승컵을 안고서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미림을 골퍼로 이끈 아버지 이대성(59)씨는 딸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미림에게 골프는 운명이다. 광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던 이씨는 “미림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골프선수로 키우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자라면서 그 마음은 공고해졌다. “미림이는

오기가 장장해요. 욕심도 많죠. 골프가 제격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죠.”
 미림에게는 골프연습장이 놀이터였다. 골프에 입문한 건 광주 무등초등학교 4학년 때다. 하지만 ‘미림이의 골퍼 만들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싱글 골퍼로 전국체전 광주 대표를 지낸 아버지가 미림이를 골퍼로 키우기 위해 지인인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에게 위탁해 기초체력을 다져왔던 것.
 심재용 감독은 “미림이는 중학교 때까지 육상으로 순발력과 민첩성, 지구력 등 기초체력을 다졌다”며 “특히, 팔이 길고 유연해 힘이 좋다”고 회고했다.
 심 감독으로부터 딸의 기초체력이 다져

아버지 골프연습장이 놀이터...무등초 4학년때 입문 중 2때 첫 전국대회 정상...고 1에 광주 첫 국가대표 172cm 장신서 뿔어져 나오는 호쾌한 장타 주무기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씨는 4학년 때 정식으로 골프에 입문시켰다. 그렇다고 곧바로 대회 출전을 한 건 아니다. 이씨의 ‘충실한 기본기’ 다지기 전략상 6학년 때까지는 대회 출전을 하지 않고 기본기를 다지는데 전력을 쏟았다.
 지루한 기본기 다지기를 끝낸 이미림은 2004년 문화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회에 참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탄탄한 기

분기와 뛰어난 체력을 갖춘 미림이는 그해 제19회 광주 주니어 골프대회 3위, 다음해 에머슨퍼시픽그룹배 제7회 MBC 미디어텍 대회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들며 주니어 상비군, 국가상비군으로 발탁됐고, 고1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여자골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이미림은 이번 시즌 LPGA투어로 진출

한 유일한 ‘토종스타’다.
 201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데뷔해 ‘내셔널타이틀’ 한국여자오픈을 포함해 통산 3승을 거뒀다.
 그는 2012년 미국 진출을 꾀했다. 하지만, 대선배 박세리와 동반 라운딩에서 참패를 당했다. 박세리에 주눅들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진출 뒤로하고 ‘배포 기르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퀘리파잉(Q)스쿨 문을 두 차례 두드린 끝에 지난해 2위로 통과해 폴시드를 따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손목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남은 대회를 모두 포기하고 재활 훈련에만 집중했다.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Q스쿨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LPGA투어에 입문해 세 번째 등판인 파운더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불과 14경기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아 기업을 토했다.
 이미림은 172cm의 장신에서 뿔어져 나오는 호쾌한 드라이브 샷이 주무기다. 여기에 컴퓨터 아이언 샷까지 장착했다. 무엇보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지가 남다르다.
 약점인 숏게임도 많이 보완됐다. 아버지 이대성씨는 “미국 진출 이후 퍼팅 감각이 아주 좋아졌다”며 “우승에 목말라 했는데, 빨리 결실을 맺었다”고 기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虎시절 가고 ‘매’ 시대 왔다

<우즈>

<매길로이>

PGA 챔피언십 우승...올해만 메이저 2승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96회 PGA챔피언십(총상금 10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매길로이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74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를 친 매길로이는 2위 필 미켈슨(미국)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80만 달러(약 18억5000만원)다.
 올해 브리티시오픈 정상에 오른 매길로이는 PGA 챔피언십까지 제패하며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2개를 휩쓸었다. 개인 통산으로는 2011년 US오픈과 2012년 PGA챔피언십까지 더해 메이저 4승째를 거뒀다. 또 그는 최근 브리티시오픈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3연승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타이거 우즈(미국)가 5연승을 기록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한 해에 메이저 2승을 거둔 것은 2008년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이 브리티시오픈과 PGA챔피언십을 석권한 이후 올해 매길로이가 6년 만이다.
 /연합뉴스



손연재, 인천 향해 ‘점프’

던디월드컵 후프·볼서 동메달 2개 추가

‘인천 아시안게임 전조전’ 성격이 짙은 국제체조연맹(FIG) 던디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가 종목별 결선에서도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손연재는 10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대회 종목별 결선 후프와 볼 종목에서 연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곤봉에서는 4위, 리본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앞서 개인종합에서 70.250점으로 동메달을 따내며 지난 3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이후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둔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에서도 메달 행진을 이어

가며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전 종목에서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깔끔하게 연기를 마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는 후프(17.200점)와 볼(17.350점)에서 각각 5위, 4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아시안게임 경쟁자인 엘리타베타 나자렌코바(우즈베키스탄)는 볼(17.250점)과 곤봉(16.950점)에서 5위, 리본(17.100점)에서 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